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상생발전 협정 준수”

### 현장 통제·임금 등 관련 노조측 주장 반박 7월 전기차 양산 성공 새 도약 기틀 마련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직원들에게는 더 행복한 회사,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조가 생기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드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해 광주글로벌모

터스가 상생의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최고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 7월15일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캐스퍼 전 기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해외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인 만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 시험생산 중인 전기차 성공을 자신하면서 내년

생산량 증가와 시장 확대, 2고대 확대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노조에서 사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선 젊은 노동자에게 미래가 없다며 현장직 초봉이 2천94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기술직 1년 차 초봉은 주거지원비와 격려금 등을 포함하면 3천748만원 수준으로 노조의 주장과는 800여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3년 차 기술직 사원 A씨의 경우

연간 임금과 사회적 임금인 주거지원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 등을 포함해 4천17만원 정도다. 또 4년 차 B씨는 4천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비는 매달 27만 2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별 격려금은 연 300만원씩, 전 사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한 초봉 주장이 실제 임금과 차이가 너무나 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불사피하게 일부 임금 내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또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는 등 현장 통제가 만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작업장에 지게차 이동이나 물품 운반 등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 중에는 휴대폰을 일정 장소에 놓아두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가 기업노조의 간담회 요청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며 적법하게 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떠나는 등 이직률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기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퇴사율은 7.9%로 대기업 8.6%보다 낮았다. 전체 기업 평균은 13.8%로 중소기업은 14.9%다. 퇴사 직원의 이직 기업은 대기업(61%)과 공공기관(7%), 중소기업(32%)이라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최근 회사에 노조가 생기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주주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회사는 교섭 요구가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따라서 여기서 합의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는 우리 회사 설립의 근거이자 존속의 기반이며 미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생발전 협정서를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면서 오는 7월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성공시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기자



‘핑크퐁·아기상어’ 기념우표 출시 2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 세계 어린이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 80만 장을 3일부터 판매한다. /연합뉴스

## 베일벗은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담았다

###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韓 증시 저평가 주원인 지목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등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이 호응·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 조개기 상장 이슈만 해소돼도 주가가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상장사들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해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비재무지표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국내 증시에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는 대표적인 비재무적 요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모자회사 중복상장(조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을 들었다.

조개기 상장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조개 신규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재무·비재무적 요소들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은 이사회가 수립·이행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시 의결도 거처하도록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계획에 지배구조 이슈가 전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 AI캠퍼스·LG, DX 스쿨 1기 운영

### 광주·서울서 데이터 전문가 90명 육성 예정

스마트인재개발원은 2일 “AI캠퍼스와 (주)랩포디엑스, 표준협회가 LG전자와 협력해 K-Digital Training 선도 기업 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DX SCHOOL 1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Digital Training 아카데미는 고용

노동부가 첨단·디지털 산업의 신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해 각 산업 대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교육생들에게 협업 기반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 사업이다.

DX SCHOOL에서는 LG전자가 선

도기업이 돼 Business Experience, Customer Experience, Digital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90명을 육성할 예정이며 6월부터 6개월간 확대, 광주 동구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LG전자 채용가산점, 수료증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훈련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X 스쿨(LG전자 실무 체험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OECD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3%(전 분기 대비)로 나타나 정부와 한은도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성장률 상향도 한국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중국은 4.7%에서 4.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견고한 반도체 수요 등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 소강 국면(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덤펀)</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